

왜 예배인가?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

TEN PRACTICES FOR SPIRITUAL GROWTH

© 2026 by Discipleship Ministries

ISBN 978-1-9692-3403-3 (print)
ISBN 978-1-9692-3404-0 (eBoo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Published by Discipleship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O. Box 340003, Nashville, TN 37203-0003
www.UMCdiscipleship.org

Printed in Korea



DISCIPLESHIP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왜 예배인가?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

TEN PRACTICES FOR SPIRITUAL GROWTH

정화영 지음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서문

우리는 예수님 사역에서 소그룹 운동의 기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동행하며 훈련하면서 단순한 가르침 전달을 넘어 삶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영적 성숙과 사명 훈련을 위한 모델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에게 깊은 가르침과 돌봄의 원리를 제공하심으로 제자 훈련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소그룹 구조의 핵심 원리를 나누셨다. 또한 함께 먹고, 걷고, 기도하고, 친교하며,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단순한 교제장을 넘어 사명 공동체로 소그룹을 통한 삶과 신앙의 통합을 제시하심으로 영적 공동체 운동의 핵심 토대를 놓으셨다.

이런 소그룹 운동이 존 웨슬리를 통해 속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회개, 격려, 신앙 실천, 영적 책임성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화를 이루는 속회로 발전했고, 이런 속회가 감리교 운동의 한 축이 되었다. 더 나아가 속회를 단순한 신앙 유지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으로 세웠다. 따라서 속회 운동은 예수님이 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돌봄, 훈련, 파송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공유한다. 오

늘날 우리도 웨슬리가 예수님의 소그룹 모델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전 교인 참여형 제자 훈련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점검하며, 서로 격려하고 돌보며, 실천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소그룹 모임을 속회, 구역, 셀, 목장, 라이프 그룹 등 다양하게 부르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소그룹 운동의 계승과 시대적 정착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자사역부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장, 돌봄, 훈련, 실천을 이뤄갈 수 있도록 소그룹 교재 시리즈를 개발했다. 이 교재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 말씀을 기초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씨름하고 부딪치는 주제를 다루고, 함께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나누면서 열 가지 실천으로 인도한다. 이 교재를 통해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점검하며, 서로 격려하고, 실천을 결단하는 일이 이뤄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소그룹 전체 교재를 “왜” 시리즈로 꾸미면서 크리스천 삶에서 꼭 물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나 자신의 신앙 영역, 사람과의 영역, 세상과 피조 세계 영역에서의 크리스천 삶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번 주제는 “왜 예배인가?”이다. 정화영 목사님이 저술한 이 교재를 통해 예배란 주제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가깝고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인지 알게 되고, 매일의 삶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을 배우고 결단하며 실천하길 바란다. 어떤

면에서 이 교재는 동적인 교재다. 다시 말해, 배움이나 나눔이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는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세워지고 성장한다. 이 교재를 통해 예수님의 소그룹 운동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제자사역부 김광기 목사

차례

시작하는 말	8
기초 다지기: 예배와 삶—“왜 예배인가?”	15
1. 실천 하나: 만남—“하나님이 먼저 오신다”	29
2. 실천 둘: 찬양—“새 세상을 꿈꾼다”	41
3. 실천 셋: 말씀—“생명의 양식을 먹는다”	53
4. 실천 넷: 순례—“예수의 길을 걷는다”	67
5. 실천 다섯: 회개—“하나님께로 돌아선다”	81
6. 실천 여섯: 성례—“은혜로 산다”	95
7. 실천 일곱: 애통—“함께 슬퍼한다”	109
8. 실천 여덟: 헌신—“나를 드린다”	123
9. 실천 아홉: 평화—“샬롬이 길이다”	135
10. 실천 열: 파송—“하나님 선교에 참여한다”	149
마치는 말	160

시작하는 말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박동하여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피가 돌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해 주듯이, 예배는 신앙생활에 생명을 주고, 기독교인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예배에 모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 삶을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반면, 심장 박동이 약해지면 생명력이 약해지듯이, 예배의 리듬이 깨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영향 받습니다. 지금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박동하고 있나요?

예배^{worship}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 “경배하다”와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 “섬김”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는 하나님 앞에서 절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라트레이아는 제사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기독교인

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사도행전 2:46~47)라고 기록하며 예배와 삶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후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했고, 우리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자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신앙의 오래된 전통 중 하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 인구의 격감으로 지난 수십 년간 빈 예배당이 많이 생기고, 교회 건물을 음악관, 미술관,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 호주, 프랑스는 2010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보다 비종교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북미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뉴욕,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는 교회 건물을 고급 콘도, 저소득층 혹은 연장자 주거용 아파트 등으로 다양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 인구 감소, 교회 폐쇄나 통합 등이 대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 예배 출석 교인은 통계에 나오는 기독교인 수보다 더 적습니다. 스스로 기독교 교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일 년에 한두 번 예

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매주 예배에 참여해야 정기 출석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월 1~2회 참석도 활동 교인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후 온라인 예배가 확산하여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으나, 대면 예배 출석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일어나는 자녀들의 운동이나 학과 관련 활동,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 문화 등은 주일 예배 출석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이런 예배 출석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현대인의 삶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주는지 또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영성과 의미를 회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왜 예배인가?》는 소그룹 모임 안에서 예배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월 1회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방학을 고려하여 11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있다면, 1주 방학을 포함해 12주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차례로 한 장씩 공부하고, 나눔을 위한 질문을 사용하여 공부한 내용을 소화하고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돕기 위해 이 책의 내용을 음성 파일로도 준비

했습니다. 각 장은 20분 내외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 대한 음성 파일은 제자사역부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음성 녹음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내용을 소화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이 원한다면, 돌아가면서 차례로 한 단락씩 읽고 나눠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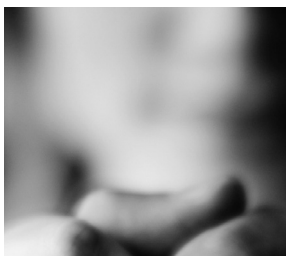
소그룹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용한 기도 (3분)
 -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활동에 마음을 조율합니다.
- 찬송 (5분)
 - 인도자가 정한 찬송을 부릅니다.
- 기도 (2분)
 - 순서를 따라 맡은 이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 삶의 나눔 (10분)
 - 지난 모임 이후 있었던 신앙의 변화를 나누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나눕니다. 참석한 인원수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여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 본문 읽기 (25분)
 - 음성 녹음을 들으며 눈으로 책을 읽습니다.

- 혹은 한두 단락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 나눔 (30분)
 - 각 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 필요에 따라 인도자가 질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열린 질문 open-ended questions’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눔 내용에 대한 평가나 질문이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 기도 제목 나눔 (5분)
 -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할 것을 언약합니다.
- 합심 기도 (5분)
 - 나누어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인들 성향에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 찬송 (3분)
 - 인도자가 적절한 찬양을 골라 부릅니다.
- 주기도 혹은 폐회 기도 (2분)

이 소그룹 교재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함께 배우며, 우리 신앙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거룩한 박동이 우리

삶 전체에 생명의 리듬을 회복하게 하고, 교회에 모여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초 다지기

예배와 삶—“왜 예배인가?”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누가복음 24:52-53

주일은 작은 부활절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부활의 목격자인 여성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했고, 그 후 제자들도 예수님을 뵈고 경배했습니다(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경배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누가복음 24장).

유대교의 안식일인 샤보트^{Shabbot}, 영어로 Sabbath는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로 삼고,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

른 일은 하지 않는 오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주간의 첫날 아침에 일어났기에, 기독교인의 예배는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은 단순히 로마 달력의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The Lord's Day},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이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예배의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큰 변화였고, 점차 기독교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헬라어권으로 전파되면서 유대교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 예배의 날은 유대교의 안식일도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의 태양신의 날을 뜻하는 일요일도 아니고, 주일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예배당 구조도 예수님이 이른 아침 부활하신 점을 살려 회중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목사도 동쪽을 보며 기도했는데, 이는 목사가 회중을 뒤로하고 가장 선두에 자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회중과 함께 부활을 상징하는 동쪽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와의 현재적 만남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떡을 떼는 순간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누가복음 24:30~31)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마태복음 18:20)라고 하신 말씀과 통합니다. 또한 예배는 예수님의 선포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며 또한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사순절의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난에 가득 차고, 혼란이 난무하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스터 피플(Easter People), 즉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합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로 이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종말론적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배의 다섯 단계

매 주일의 예배는 이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모임, 말씀, 성찬, 응답, 파송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성은 예배가 처음 성립된 초대교회의 예배 구성에 근거를 둡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의 전체 구성도 예배의 다섯 단계를 보여줍니다.

- 모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 말씀: 예수님은 모세와 예언서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 성찬: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며 성찬의 4대 요소인 빵을 “뜯고, 축복하고, 떼고, 나누는” 은혜를 베푸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 응답: 서로 말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진 기억을 나눕니다.
- 파송: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가 엠마오 가는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예배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중요성을 잘 나타내기에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도 모임, 말씀, 성례, 응답, 파송의 요소들은 모두 남아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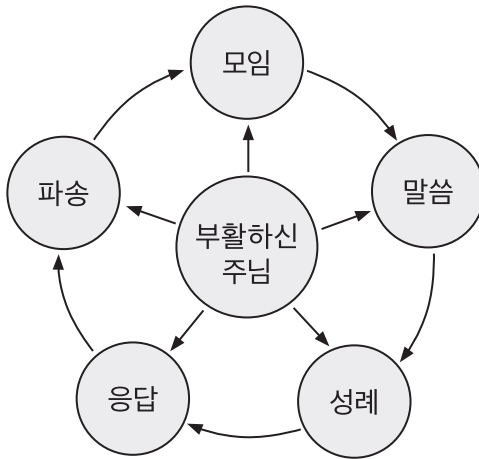


도표1 예배의 흐름

1) 모임

모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서서 대화를 시작했듯이, 우리 예배의 시작도 전주, 예배로의 부름, 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 예배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관계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실천 하나는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되는 “만남”을, 실천 둘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인 “찬양”에 관해 살펴봅니다.

2) 말씀

모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말씀의 주된 부분은 성경 봉독과 설교입니다. 또한 묵상, 증언, 드라마, 모놀로그, 음악 등을 통해 창의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달해 주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자들은 마음을 열고, 배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또한 각 절기에 따라 성경 말씀을 들으며, 예배자들은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사역 역사를 함께 따라 걸으며, 오늘날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심화합니다. 실천 셋은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천 넷은 성서일과 주제에 따라 예수와 함께 예배의 일 년을 보내는 “순례”에 관해 나눕니다.

3) 성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후 예배자들은 성례의 예전으로 초대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그 정체성을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받는 성례지만, 성찬은 가능하면 자주 받으면 좋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앞서 우리는 회개와 참회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포를 받습니다. 실천 다섯에서는 “회개,” 실천 여섯에서는 “성례”를 살펴봅니다.

4) 응답

말씀과 성찬을 받은 후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합니다. 예배 안에서 응답은 찬송, 신앙 선언문, 중보 기도를 통한 이웃과의 연대, 고난받는 사람들이나 현실에 대한 애통, 봉헌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을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예배 중에 이웃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드리거나, 특별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천 일곱은 연대의 일환인 “애통,” 실천 여덟은 봉헌을 포함한 “헌신”을 다룹니다.

5) 파송

응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 후에는 파송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파송은 단순히 예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소명을 받고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처럼, 선교의 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실천 아홉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예배에서의 평화가 어떻게 삶의 평화로 연결되는지를, 실천 열에서는 “파송”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는 모임에서 말씀, 성례, 응답, 파송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 순서는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 봉독이 꼭 말씀의 시간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기도가 꼭 성례전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흐름은 우리가 예배 전체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예배의 실천을 보다 의미 깊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창의적으로 달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모이고 흠어짐을 반복하면서 부활의 사람으로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함께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막 교부들은 사막의 동굴에서 홀로 지내면서 수십 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매일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스스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 없이 혼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공예배를 은총의 수단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모이고 흠어드는 리듬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궁극적 방향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주중 집회이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흠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 후에 세상으로 “흠어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모이고 흠어드기”의 리듬을 주일에서 주일로 매주 한 번, 가능하면 주중에도 반복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배에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은 절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진 후 다시 모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가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흩어진 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배는 자기만족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중에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를 위해 가정 기도와 개인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기도를 나누며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에서 공예배를 매일 드리는 어렵지만, 가정 기도와 개인 기도는 아침이나 저녁에 혹은 아침에는 개인 기도, 저녁에는 가정 기도로,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공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함께 나누며 성경을 계속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탐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

서적 차원에서 그 배경과 의미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 말씀을 맞이하는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경 본문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읽으며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그림이나 조각, 스테인드글라스에 묘사된 모습이나 아이콘 등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성경을 탐구하는 생활이 잘 되었을 때 주일 예배의 주요 요소인 말씀 선포 시간이 더욱 의미 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웰컴 홈! Welcome home!”이라고 말하듯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 소그룹 교재는 모임, 말씀, 성찬, 응답, 파송,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함께 모여 묵상하고, 열 가지 실천 방안들을 실천하며, 예배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신앙 공동체로 성숙하며, 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소그룹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 은혜로 빚어 주소서.
성령께서 이 시작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질문

1.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왔는지 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실존적 만남의 자리로서 예배를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2. 모임, 말씀, 성례, 응답, 파송의 다섯 요소는 예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에서 이 흐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지, 혹은 어떤 순서가 아직 낯설거나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인지 나눠 주십시오.
3. 예배는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으로 이루어집니다. 웨슬리는 가정 기도, 개인 기도, 성경 탐구를 주중 영적 실천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주중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이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새롭게 시도해 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